

성교육의 방향과 간호과제

박 영 주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1. 들어가는 글

'나는 자라면서 그 누구로부터도 성에 대한 조언이나 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 집에 있던 백과사전만이 유일하게 내게 성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학교선생님을 비롯해서 어머니도, 목욕탕을 같이 가는 아버지조차도 나의 성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지 않았다. 결국 그만그만한 또래의 친구들끼리 주고 받는 주위들은 애기들을 통해 그릇된 성지식만 쌓여갈 뿐이다.'(2학년 남학생)

'그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고민끝에 아이는 낳기로 했다. 나는 특별히 원해서 얻은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은 그나 나나 낙태에 대한 두려움이 양도적이었다. 모양도 채 안갖추어진 찌똥어리지만 몸안에서 막 자라려고 하는 한 생명체를 끄집어 낸다는 게 끔찍해서 였다.... 우리 커플은 임신을 안 후 결혼과 출산을 선택했지만, 많은 커플들은 지금도 낙태를 선택하고 있다. 변화된 성윤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남성과 여성은 육체적으로 차이가 있으니 여성이 조심해야 한다.'는 호신차원의 교육이었지만 많은 남녀들이 성관계를 가지는 이 세대에 워낙 같은 내용은 도리어 낙태를 조장하는 것 밖에 안된다. 이제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랑과 성관계를 가려야 한다....' (4학년 여학생)

위의 글들은 저자가 담당한 본 대학 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들로 부터 '여성건강과 관련된 제 문제중 주제를 임의선정하여 그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는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성교육이 피상적 배우기에 그친다.', '주로 생물학적 지식 전달에 치중한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들어온 이야기를 반복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는 평을 듣는 현재 우리나라 성교육의 실재를 잘 반영하고 있다.

물론 최근 몇 년사이 우리 사회는 청소년 성문제가 증가되고 표면화되면서 조기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증가되었고 그 체계적 전달을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성을 띄면서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성에 관한 지식을 어디까지,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그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테면 대한가족협회는 1998년 3월 1일부터 성교육을 남녀생식기와 성욕에 대한 궁금증, 임신과 불임, 피임, 성병과 에이즈, 약물의 오남용 및 성폭력 대처법 등의 8개영역으로 나누어 『자녀성교육 부모교실』의 유료 음성정보서비스(700-4044)를 제공하고 있다(한국일보, 1998년 3월 10일).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성과 행복'이라는 고등학교용 성교육 교과서

(1998)를 발간하여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접근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출산, 성병, 피임법 등에 대한 설명부터 성폭력 피해 상담기관 소개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보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성의 개념, 성의 역할, 생식기관의 구조 및 기능, 성적 욕구, 임신, 출산, 임신중절, 피임, 성욕에 잘못된 통념, 지나친 자위행위의 문제점, 동성 친구에 대해 신체적 욕구를 느낄 때의 조치법,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 예방법 등의 연구문제를 제시해 토론식 수업도 가능하게 하고 있어 일선 학교의 성교육 교재로 가장 파격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한겨레신문, 1998년 3월18일).

이러한 성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자세 전환과 함께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은 성교육을 담당할 교육자에 대한 준비 문제이다. 실제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육을 받게되는 수혜자 학생들의 대다수가 성교육에 관한 성교육 전문가로부터 교육 받기를 희망하고 있고(한국일보, 1998년 3월 10일), 현실적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위에서 제시한 '성과행복'이라는 성교육 교과서를 양호교사나 자원봉사자들이 연간 5-10시간 범위내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어서 이 영역에서 특히 간호학 전공자의 역할 중대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교육자의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연수과정이 요구되는 상황에 발맞추어 여성건강간호학회에서는 이번 1998년 하계연찬회에서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교육과정을 실시하였고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의 성교육에 대한 관점, 성교육의 현황 및 방향을 검토함과 아울러 관련정책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관련부문에서 간호과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성교육에 대한 관점

현재까지의 성교육에 대한 관점 즉 이론은 성교육불필요론, 성기(性器)교육론, 순결교육론, 성폭력 예방교육론, 우호적 성교육론 및 성개방 교육론으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다(표1). 이들 성교육에 대한 관점들은 성교육불필요론을 제외하고는 성교육을 시켜야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동일하나 각각의 관점에 따라 성교육의 철학, 목적 및 이에 따른 교육내용의 틀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한, 정, 양, 김, 1994).

1) 성교육 불필요론

성을 종족보존을 위한 본능적 행위로 간주하며, 성은 가능하면 감추고 숨겨야 될 은밀한 것으로서 굳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성에 대해 가르치지 않더라도 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점에서는 성교육을 시킨다고 아이들에게 성지식을 알려주게 되면 오히려 성적 호기심을 자극시켜 성행동을 유발하므로 가장 좋은 성교육 방법은 어떠한 종류의 성교육도 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점은 첫째, 성인이 되면 성에 대해 자연히 알게 된다는 전제를 하고 있어 이는 곧 성에 대한 음성적 정보 유통 구조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성지식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암묵적으로 용인해주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둘째, 이 관점은 인간에게 있어 성은 종족 보존의 행위라기 보다는 사랑과 믿음 등을 표현하는 친교행위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함에도 성을 종족보존의 본능적 행위로만 전제하는 편협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관점은 1980년대이후 성의 개방화와 상업화가 만연함에 따라 청소년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상당히 설득력이 약화되었으나 아직 뿌리깊게 남아있는 입장이어서 지속적인 성교육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2) 성기(性器)교육론, 순결교육론

그동안 우리 성교육의 주류는 순결교육이나 성기교육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관점의 공통점은 인간의 성을 종족보존을 위한 성행위로 보는 제한된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기교육론은 남녀간의 성을 구별해주는 생식기능과 관련된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교육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며, 순결교육론 역시 성기교육론과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나 단지 여자에게만 성의 윤리성을 강조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이 관점이 안고있는 문제는 인간의 성을 생물학적 과정으로만 보는 데 있다. 즉 인간의 성과 성행동은 사회, 문화적, 정치적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전인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성을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입장으로 다루게 된다. 그 때문에 인간의 성과 성행동 전체를 성 호르몬의 작용이나 생물학적 차이로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더욱이 여성의 순결을 최고의 덕목으로 강조하는 순결교육론은 성기교육론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결정론의 입장을 취하면서 얼핏 성의 윤리성을 강조한 도덕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나 전성(全性)으로서의 인간의 성에 대한 윤리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기 보다는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받기 위한 출산의 도구로서 여성의 성을 묶어두기 위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으면서, 우리 사회의 이중적 성윤리 규범의 정당화 기제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장필화, 1989).

3) 성폭력 예방교육론

비교적 최근에 들어 성폭력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성폭력 예방교육론으로 이 교육론은 앞의 성교육론과는 달리 성비행의 방지와 성폭력 예방에 우선순

위를 둔 교육내용을 설정한다.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청소년의 혼전임신을 막고 성병 감염을 억제하며 위험스러워 보이는 10대들의 성윤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현실적 욕구를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론은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가장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교육론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폭력 예방교육론이 안고있는 한계는 첫째, 성폭력 예방교육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에 대한 관점에 따라 성교육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순결교육론 관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론을 주장하는 경우는 남성의 성욕은 여성의 성욕보다 강하므로 성폭력을 예방하는 길은 여성이 남성들로 하여금 성충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몸단속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반해 인간의 성을 본능적 행위이기보다는 정서적 유대관계에 기반한 인간관계의 표현으로 보고, 남녀간의 성차는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사회문화적인 것으로 보는 성의 관점에 근거한 성폭력 예방교육론에서의 성교육의 내용은 사회의 향락문화를 정화하고, 성차별적이고 퇴폐적인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 대응능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강조를 두게 된다. 둘째, 성폭력 예방교육론은 성교육을 전인교육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로 파악하기 보다는 성폭력 제거라는 수단적 가치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성폭력이 없는 건강한 사회는 올바른 성교육의 결과로 성취될 수 있는 사회이기는 하나 성폭력 예방이나 성비행 방지가 성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

4) 우호적 성교육론

이제까지의 성교육론과는 달리 인간의 성(sexuality)을 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일부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으로 보아왔던 이제까지의

성개념에서 탈피하여 성행동, 개인이 갖는 성에 대한 환상, 꿈, 태도, 사고, 감정, 가치관, 신념, 이해심 및 개인의 존재의미 등의 모든 것을 지칭하는 포괄적 의미로 규정한다. 따라서 성교육은 인간의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이해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충실히 발전시켜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정의 된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성교육은 인간형성 교육이자, 인간관계 확립 교육임을 전제하게 되며, 교육내용도 남녀의 성행동의 차이나 성차별적 관념 모두 생물학적으로인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요인의 영향에 의한 결과라고 인지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5) 성개방 교육론

성개방 교육론은 성에 대한 이해는 우호적 성교육론과 동일하나 단지 성행동에 있어 쾌락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성교육에 대한 관점은 보다 개방적이어서 성욕과 성적 자극에 대한 감각능력 즉 성발달은 행동을 통한 학습에 의해 발달된다. 따라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성욕을 표현하고 성적 쾌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행동을 통한 학습이 성교

육의 중요한 방법론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성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성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을 배우게 되므로 이 과정 없이 성인이 되면 이미 정상적 성발달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개방 교육론의 문제는 비록 이 관점에서 제시되는 성교육 방법론이 이론적 타당성을 갖는다해도 성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는 논쟁이 불가피하므로 현실적인 성교육 방법론으로 자리잡기는 어렵다.

이상의 성교육론에 의거할 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성교육론은 순결교육론이었으며, 성폭력 문제의 사회화 등으로 성폭력 예방교육론이 주장되면서,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한 성교육론은 순결 교육론적 관점과 우호적 성교육론 관점이 동시에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성교육의 방향은 성을 성기나 성행동은 물론 인격과 인격과의 접촉에서 오는 모든 것 즉 인간적 유대, 애정, 우정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로서 이해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전인 교육으로서의 성교육을 모색하고 있어서 우호적 성교육론이 성교육의 방향설정에 중요한 틀로 적용될 전망이다.

(표 1) 성교육에 대한 관점 *

성 교육론	성역할론	성과 성교육에 대한 관점
성교육 불필요론		★성은 종족보존을 위한 본능적 행위이다. ★성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히 알게된다.
성기교육론 순결교육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강조 ★남성의 성욕은 여성보다 강하다	★성은 종족보존을 위한 본능적 행위이다. ★생식기의 생물학적 구조를 알아야한다. ★ 여성의 성은 출산도구이다.
성폭력예방교육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강조 ★남성의 성욕은 여성보다 강하다 ☆남녀의 차이는 사회문화적 영향때문 ☆남녀의 성욕은 크게 다르지 않음	★성은 종족보존을 위한 본능적 행위이다. ★성비행방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성은 인간관계의 표현이다. ☆성비행방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우호적성교육론	★남녀의 차이는 사회문화적 영향때문 ★남녀의 성욕은 크게 다르지 않음	★성은 인간관계의 표현이다. ★쾌락은 성의 중요한 요인이다.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 및 심리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을 알아야 한다.
성개방교육론	★남녀의 차이는 사회문화적 영향때문 ★남녀의 성욕은 크게 다르지 않음	★쾌락은 성의 본질이다. ★성을 즐길 수 있도록 충분히 개발되어야 한다.

* 한 등(1994). 중학생 학부모용 성교육 읽기자료 개발에서 인용

3. 성교육의 현황 및 방향

현재 우리 사회의 성교육 현황을 가정에서의 성교육과 학교에서의 성교육 현황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에서의 성교육 현황 및 방향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성적 성숙을 격려하고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아니면 성에 대해 금기시하고 억압하려 했는지는 자녀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적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데에는 90%이상 동의하면서도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품위가 떨어지는 행동이라든지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쩐지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한 남자의 성충동, 자위행위, 순결에 대해서는 여자의 성충동이나 자위행위, 순결에 대해서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여전히 성을 금기시하고 남녀에게 다른 성규범을 적용하는 이중적 성윤리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 등, 1994). 따라서 가정에서 성교육이 이뤄져야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우리 부모 자신의 성관을 돌아볼 수 있고 성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부모의 성에 대한 의식 및 태도는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성관련 대화는 비록 부모가 성관련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전에 그런 대화를 자녀와 가졌더라도 현재 자신의 심신상태가 지쳐있고, 부모 양쪽은 물론 어느 한 쪽이라도 성을 인간이 겪는 괴로움의 원천이고 더럽고 상스러운 것으로 보는 즉 성을 적대적으로 보는 태도를 갖는 경우 그리고 부부관계가 심각한 성문제에 처한

경우는 자녀와의 성관련 대화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한편 부모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 한국청소년연구원, 가족계획협회나 시민단체들은 부모들을 위한 성교육 자료를 발간하거나 교육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교육자료들은 학생들의 교육요구에 기반하기 보다는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내용을 담고있고, 남녀의 생물학적 성차를 사회문화적 성차로 연계시켜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녀에게 각기 다른 성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성에 대한 관심이나 성행동을 적절히 지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모들 자신이 갖고 있는 성과 성역할에 대한 생각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교육대상자인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성에 대한 의문과 교육요구를 중심으로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2) 학교 성교육 현황 및 방향

우리 학교 성교육은 1980년대 교육부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1982년 2학기부터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고 1983년에는 교육부에서 '성교육지도자료'를 발간하여 성교육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끝이어 서울특별시 교육 위원회(1984)에서는 중학교에 주무교사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제5차 교육과정과 제6차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관련교과와 특별활동을 통해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1987, 1992).

그러나 일선 학교의 여러 제한적 요인들로 현재까지도 성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또 실시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지

도에 불과하여 체계적인 지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여성 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상담소에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불만족하다'가 79.9%로, 불만족의 이유는 '뻘한 이야기이다.'45.6%, '성교육을 거의 안한다.'27.4%, '정말 궁금한 것은 없다.'12.2%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이 학생들 수준에 못따라가며 또한 구체적이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하고있다(서울신문, 1998년 4월 27일). 또한 1996년 10월 대한가족협회가 고교 남학생 1,976명, 여학생 3,1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중 16.2%가 성경험을 했으며, 이중 피임을 실천한 학생은 52.2%였고 피임방법과 성병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잡지(22.2%), 친구(14.8%), 관련책자(14.8%) 였다. 또한 여고생중 성경험을 한 여학생은 7.5%였으며, 임신경험자는 0.4%였고, 이중 피임방법을 알고있는 학생은 43.1%, 콘돔사용과 같은 간단한 성병예방법을 알고 있는 여학생은 32.4%에 불과했으며, 대상자의 94.7%가 성교육이 필요하고 성교육은 성교육전문가로부터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한국일보, 1998년 3월 10일).

따라서 제기되는 학교 성교육의 문제점과 관련된 요인을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성교육의 내용

① 표방하는 성교육의 이념과 내용의 모순

현재 우리 성교육의 목적은 성을 인간관계의 표현으로 전제하고 전인교육 인간화 교육이라는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이러한 목적 성취를 위한 성교육의 내용이 이념과 상충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즉 여전

히 남성중심적 시각과 이를 중심으로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내재해있다. 이를테면 (1) 남성의 성욕, 성충동을 바로 남성 호르몬 때문이라는 신체적 결정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남성의 충동적인 성욕은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에게는 호신차원의 '몸가짐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2) 전인교육으로서의 성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은연중에 여성 순결교육을 그대로 강조하면서 여성집단을 순결한 여성과 순결하지 않은 여성으로 이분화 시킨다. (3)남성은 성적 공격자로, 은연중에 권위주위와 우월의식을 갖도록 하는 반면 여성은 성적 피해자로,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 의식을 갖도록 한다. 즉 총론적 부분에서의 개념정의와 실제 구체적인 각론 부분에서의 교육과 지도는 모순이 있는 부분들이 교육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에 제시된 성의 개념, 성역할에 대한 성교육 영역 및 생물학적 지식 영역의 전반에 걸쳐 신중한 검토와 평가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② 성교육 내용의 체계성과 유기적 연관성의 문제

각 발달단계에 따른 성교육의 내용 정립과 이 내용들이 유기적 연관관계를 갖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한 '성과 행복'(1997)의 교과서 머리말 말미에는 '교과서로서 이 책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교사의 지혜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내용을 발췌하거나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로 맺고 있다. 이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한 편으로는 각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내용의 구성에 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공하

지 못하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고등학교용 성과행복에는 이를테면 구체적인 콘돔 사용법등이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거나, 성폭력 피해 상담 기관의 제시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발달단계별 성교육과정은 이처럼 단순히 구체성과 비구체성만으로 유기적 관계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발달단계별 성교육 내용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성교육의 방법

① 성교육 제공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문제

성교육 제공자의 성과 관련된 언어적 비언적 표현은 아이들의 성의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학교 및 사회에서의 성교육 제공자들은 성장과정에서 우호적인 성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한 집단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과정 및 자기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성교육 제공자들을 통한 자연스럽게 못한 성교육은 은연중에 적대적인 성관을 부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학교나 사회에서의 성교육 제공자들에게는 스스로의 성관을 확인하고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성에 대해 편안해질 수 있는 기본적인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양적인 교육이나 연수 시간에 의해서 성교육 제공자로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② 일회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성교육

성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우리 사회는 청소년기에 집중하거나라도 일회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청소년기가 발달단계의

특성상 성과 관련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임에는 분명하나, 성교육은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져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는 점, 또한 단순히 성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조화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전인적 교육이라는 점, 성은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

4. 성교육 관련 정책의 방향

본 고에서는 성교육과 관련된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우리의 간호과제가 요구되는 관련 정책(정무장관(제2)실, 1997년 12월)을 발췌하여 제시함으로써 성교육 관련 정책의 방향을 대신하고자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

1) 여성에 대한 폭력발생 방지 환경조성

필요성 :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추세를 볼 때 연평균 증가율이 19.8%로 나타나며 이는 전체 범죄 증가율 4.3%를 상회하고 특히 특히 불법 유흥, 퇴폐업소 및 음란 대중매체 등 범죄 유발 요인이 급증함에 따라 성폭력 범죄 또한 계속 증가할 전망이므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효율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

추진 계획 :

- ◇ 여성교육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98 -)
- ◇ 성교육 강화지침 시달
 - ◇ 성교육관련교과, 특별활동시간 및 학교 재량시간 활용, 집중교육

- ◇ 학교별 성교육 전담부서 및 담당자 배정, 운영(98 -)
- ◇ 학부모회의, 가정통신문, 성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성교육 금기 분위기 해소
-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연수과목 시간 배당 및 담당교사 연수
- ◇ 교육부 지정 일반연수 등(98-, 매년 300명 : 대한가족협회)
- ◆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지정 성교육 연구학교 운영(98 -)
- ◇ 교육부 지정: 3개교(초, 중, 고별 각 1개교)
- ◇ 시도교육청 지정 권장
- ◆ 교육청, 교육연구원, 각급 학교의 성교육자료 개발, 보급
- ◆ 성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 연 2회
- ◆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지도체제 구축
- ◇ 학생선도 협의회, YMCA, 대한 어머니, 대한가족계획협회 등 사회단체
- ◆ 에듀넷 성교육 상담 운영(98-)
- ◇ 상담영역의 특성에 따른 상담방법의 다양화
- ◇ 집단, 개별 상담, 편지상담, 24시간 전화상담 등과 연계 운영
- ◆ 교육방송을 통한 성교육 강화 (98-2000)

2) 폭력에 의한 피해여성, 가족의 보호

- ◆ 성폭력 피해자 보호강화
- ◇ 성폭력 피해상담소 확충 및 상담보호기능 강화
- ◇ 성폭력 피해 상담소 확충 :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여성복지 상담소, 여성회관 상담실을 활용
- ◇ 성폭력 피해 전문상담원 양성
- ◇ 소녀가장등에 대한 보호강화 :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수

시방문 실시.

- ◇ 성폭력 피해자 보호사업 강화
- ◇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확대
-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모자보호시설 등 유사시 유사시설이나 기존의 상담기관에서 일시 보호기능 수행
- ◆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제도 도입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 I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보완 조치 추진
- ◇ 가정폭력 사례조사 연구 및 대책수립
-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
- ◇ 민간의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 등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
- ◇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98-)

5. 간호과제

앞서 제시된 바대로 우리 사회에서의 성교육의 방향을 요약하면, 성기교육론, 순결교육론, 성폭력예방교육론 모두 나름대로의 교육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호적 성교육론에 근거한 성교육으로 방향 설정을 하고 이를 추진하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교육의 방향과 관련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예방차원 및 치료적 차원에서의 성교육 부문에서 간호역할이 증대되어야 하며 이 역할의 적극적 수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노

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예방적 차원 및 치료적 차원에서의 성교육 및 성상담 모든 영역에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 및 증대가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간호계에서는 여성건강간호학회나 관련학회를 중심으로 이들에게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인정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이 전망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가. 실제 성교육 실태 관련 연구결과 등에서 성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은 성교육에 관한한 성교육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성교육을 양호교사나 자원봉사자들이 맡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또한 앞서 제시된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중 여성에 대한 폭력발생 방지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부 추진계획안 중에는 학교교육을 통한 성교육을 강화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연수과목 시간 배당 및 담당교사 연수(교육부 지정 일반 연수 등)를 추진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폭력에 의한 피해여성, 가족의 보호와 관련된 보건 복지부의 정책은 크게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두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과 관련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추진계획중에는 성폭력 피해 전문 상담원 양성 및 가정폭력 상담원의 양성이 포함되어 있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담원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성폭력, 가정

폭력 피해자를 직접 일선에서 접하게 되는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영애(1998)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검사와 치료시 의료인의 인식 부족과 지식 부족으로 적절한 검사나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전문 성교육자로서 간호사 자신과 간호대상자의 성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성상담과 간호를 위해서 간호학 교육과정내에 전문적인 성관련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정태(1998)는 의과대학에서 성교육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고 학생들에게 그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성에 대한 강의를 들은 경험이 개인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었고 특히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지식의 변화보다는 태도의 변화와 성문제를 가진 환자들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면서 올바른 성교육과 건강한 성생활의 기본 틀 확립을 위하여 성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경험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여성건강간호학회 주최 하계연찬회 프로그램이었던 성교육과 성상담 전문교육과정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평가를 보면 참석자의 대부분이 여성건강간호학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앞으로 성교육과 성상담과 관련된 영역에서 연구나 봉사를 희망하거나 실제로 성교육이나 성상담을 하고 있는 성교육 제공자들이었음에도 교육후 성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태도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번 프로그램 참석의 효과로 제시하고 있어서 실제 간호학에서 성관련 교육의 현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학 전공자들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서 간호학교육과정에 전성(sexuality) 교육 강좌가 시급히 개설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진선(1995). 성교육이 국민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 논문.
서울신문 1998년 4월 27일
- 서울특별시 교육청(1998). 성과 행복.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교육청(1997). 성과 행복.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오영근 편저(1996). 성의 과학사전. 서울 : 전파과학사.
- 이경자, 윤영숙, 서명선 (1992).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이문희(1993). 도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와 성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이정태(1998). 인간 성의 정신의학적 측면. 여성건강간호학회 하계연찬회 자료집.
- 이화연 (1995).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 어떻게 할까. 서울 : 들베게
- 장필화(1989). 성(sexuality)에 관련한 여성해방론의 이해와 문제, 한국여성학, 제5집, 49-79.
-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여성국(1990). 인간과 인간관계를 배우는 성교육 교과서. 서울 : 동지
- 정무장관(제2)실.(1997).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 조원정, 김진순, 김용순, 서문자, 이광옥, 김윤희, 이숙자(1996). 성교육. 서울 : 현문사.
- 최영애(1998). 성폭력 현황과 대책. 여성건강간호학회 하계연찬회 자료집.
- 한겨레신문 1998년 3월 18일
- 한국성폭력상담소(1997). 건강한 성만들기 - 중학생 성교육지침서-
- 한국일보 1998년 3월 10일
- 한정자, 정해숙, 양애경, 김홍숙(1994). 중학생 학부모용 성교육 읽기자료 개발. 한국여성개발원